

보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慶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鄭昭永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93
길동 오피스텔 4층 411호
TEL: (051) 245-7551 ~ 3, FAX: 245-7550
인쇄처: 釜山日報社
在社(總會)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북빌딩 504호
T: (02) 783-0071 ~ 2 F: (02) 783-0073

동문돕기 창구 개설 장학금 대출제 도입

본부동창회는 빠르면 올 봄부터 「불우동문돕기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수혜자 범위 확대와 대학 등 재학동문에게 등록금 무이자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鄭昭永 회장(6회·정소영치과의원장)은 5일 본부사무국에서 99년 주요사업계획안을 발표하고, 『본부는 IMF한파로 퇴출돼 실직상태에서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 동문 및 가족들에게 일자리를 안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구제계획안을 마련하겠다』며 『회장단회의 등에서 심의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鄭회장은 또 『장학금 수혜자 범위

본부 99년 운영계획안

4월중 2회 골프대회
바둑·등산시리즈 추진
가족 적극 참여 행사로

도 현재 개교기념일에 수여하는 모범 재학생과 졸업식에서 수여하는 서울대 합격자 등에 국한된 것을 대학원이나 연구기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졸업생에게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대학재학 동문이 등록금을 필요로 할 때 자신의 동기회 집행부 등에서 추천을 하면 무이자로 대출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도

이사회에 상정, 결정하게 된다.

또 「모교 개교 60년사」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 구성문제, 용마대동계 개최문제 등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본부는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에 주력, 오래 전부터 구상해온 기별대항 바둑대회, 기별대항 등산대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예정된 행사는 △2월중 신년상견례 겸 이사회 △3월중 제36차 정기총회 △4월중 제2회 기별대항골프대회 △5월중 용마테니스대회 △6월중 기별대항 바둑대회(계획) △7월중 등산대회(계획) △9월하순 기별대항 야구대회 △12월초 용마의 밤 등이다.



화합
결속
한마당
용마 가족은 끈끈한 정으로 뭉쳐 도전과 시련과 영광을 함께 누린다. 시진은 용마대동계 첫 행사에서 흥을 돋아주는 밴드 플레이(위)와 입장식 광경.

6개 회칙개정안 승인

본부 임시총회

본부동창회 임시총회가 지난 12월 11일 오후 6시 부산 코모도호텔 「희락정」에서 「98 용마의 밤」 축제에 앞서 열려 1, 2차 이사회를 통과한 회칙중 제4조 4항 장학사업 규정 등 6개 개정회칙안을 승인했다(사회崔得鎬사무국장·11회).

鄭昭永 회장(6회·정소영치과의원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98년 제1차 이사회(6월26일)를 통과한 회칙중 △제4조 4항 「장학사업」을 「장학사업으로 재단법인 용마장학회를 둔다」 △제11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를 「이사회는 본 회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총무·재정·체육·사업·연구의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1조 10항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사업계획안의 심의」 추가 △제11조 11항 「(재)용마장학회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추가 △제16조 5항 「이사: 50명 이상을 「이사: 회칙 제3장 12조에 의한 이사 수와 각 동기회별 추천이사로 한다」등 개정회칙안을 승인했다.

총회는 또 2차 이사회(11월25일)를 통과한 회칙중 제21조(개정) 3항에 「본부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를 추가하는 개정회칙안도 승인했다.

신년사

본부회장
鄭昭永
(제6회)



새로운 밀레니엄, 그 천년의 지평을 열고 새 문명의 가치체계를 태동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해 1999년을 희망과 박찬 기대감 속에 맞이했다.

지난 한 해 우리 용마가족도 혼신의 힘으로 IMF한파를 헤쳐 나왔다. 그러나 시련은 아직도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안팎으로 도전과 시련이 예측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에게 강렬하게 요구되는 것은 용마정신의 결집이요 무한한 잠재력을 거대한 추진력으로 가동시켜 공동체발전의 활력소로 삼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바탕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 사회가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상처나 있으며 가치기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를 귀담아 듣고 근본을 튼튼한 반석 위에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는 동창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가늠하고 화합과 결속을 강화해 효능의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생각한다.

지난 연말 마창(馬昌)과 울산의 송년축회에 다녀왔다. 각계각층의 동문들과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격려하는 열정의 광장이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는 젊은 층의 동문들이 최근 퇴출한 파로 직장을 많이 떠나는 바람에 참석률이 저조했다. 가슴 한 가운데 텅 비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본부는 올해 다음의 사업들에 역점을 두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려고 한다.

먼저 봄쯤에 어려운 동문돕기창

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사무국이 마련한 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심도 높게 연구·심의한 후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시행하려고 한다.

다음으로 장학금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동문이 대학진학(대학원 및 박사과정 포함) 후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해당 동기회의 집행부와 이사회가 공동책임으로 추천하면 무이자로 등록금을 용자해 주려고 한다. 물론 이 시안도 집행부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필수로 한다.

그리고 올해는 동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용마대동계·합동산행대회·기별대항 바둑대회 등을 개최하고, 4월중 예정하고 있는 제2회 기별대항 용마골프대회의 저변확대 등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쏟겠다.

이같은 사업들은 끈끈한 정으로 응축된 동창애라는 단심(丹心)을 계속 승화시키게 되고, 동창회의 주체인 동문이 의식을 시대감각에 걸맞게 전환하며, 참여성을 제고할 때 동창회는 지속적으로 역동성을 유지해 활성화되리라고 확신한다.

근본을 확고하게 재정립하려고 함에 있어 지역주의와 소영웅주의, 현실감을 간과한 독선과 야집, 친소관계의 선호와 편파성 등이 갈등구조를 빚어 화합과 결속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를 과감히 타파해야 할 것이다. 동창회의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위해 화합과 결속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크나큰 삶을 추구하자. 용마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바탕을 다지고 위치를 세우자

부산예술문화를 이끌어온 부산예술학교가 부산예술문화대학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1세기의 다양한 사회요구에 부응하여
실기위주의 교육을 목적으로하는
2년제 대학으로서,
경쟁력 있는 실용예술교육과 학생들의
소양교육을 위해 예비 신항신부교실 등의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우리대학은 특기와 재능 또는
취미가 있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설치학과

- 음악과
- 실용음악과
- 연극과
- 영화영상과
- 무용과
- 도예디자인과
- 생활장식디자인과
- 시각정보디자인과
- 광고창작과
- 만화예술과
- 조형미술과
- 문예창작과
- 이벤트예술과

학교법인 원곡학원

이 사 정 : 안관성
학 장 : 우명수 (5회 전 부산광역시 교원) /
기 획 실 정 : 안원철 (32회)



부산예술문화대학
PUSAN ARTS COLLEGE

608 - 025 부산광역시 남구 태영동 1552번지
TEL: 051-628-7990-3 FAX: 051-628-2719
http://Internet.pia.ac.kr

용마장학회 이사회 개최

결산·예산안 승인...이사·감사 개선

본부동창회 (재)용마장학회는 지난 11월 30일 오후 6시 부산 서구 서대신동 일미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결산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후 이사와 감사를 새로 선임했다.

金根俊이사장(1회·본부교문)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먼저 97년 1월 1일~98년 11월 30일 현재 결산안(법인기금분·일반회계분·동창회이관분)을 심의한 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용마장학회 법인기금 경우 예탁기금은 모두 13억2천8백만원(정기예금)이고, 이에 대한 이자수입과 차입금 등 3억1백95만여원으로 목적사업비(장학금·연구비·야구지원비)와 창업비, 법인세, 운영비 등에 3억1백29만여원을 충당했다(별표1 참조).

일반회계 경우 당초 출연금 3억5천1백50만원(개인·동기회·작능회)과 이자수입 등 모두 3억9천3백68만여원으로 야구부 및 모교지원과 기타에 1억9천5백만여원을 집행했고 대여금 2천5백만여원 등에 충당해 실질 이월 총액은 1억9천8백55만1천7백98원(기금 1억7천3백만원·대여금·기타예금)으로 결산됐다(별표2 참조).

또 본부에서 이관된 장학금분 7천6백47만1천원은 야구부 지원금 2천9백99만여원, 모교지원금 1천9백40만원, 기금조성세비 1천6백90만원, 동창회지원금 8백15만여원 등 6개 과목에 전액 집행됐다(별표3 참조).

이사회는 이날 예산안 심의에서 △장학금은 전년비 4백만원을 증액한 2천3백만원으로 하되 △야구지원금은 경남고 경우 3천만원 줄인 9천만원으로, 경남중 경우 5백만원 줄인 1천5백만원으로 모두 3천5백만원을 깎았으며 △모교연구비 경우 전년비 5백만원 삭감 △운영비(본부지급분) 경우 전년비 1천만원이나 감액시킨 후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같은 예산 삭감 조치는 최근 예금금리의 급락으로 약 3천만원의 수입감소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올해부터 현재 기금(용마장학회 법인기금·일반회계 기금)의 규모는 목적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유지할 것을 결의했다.

(별표1) (재)용마장학회 법인기금 결산서 1997.11-1998.11.30

과목	실액	내역	과목	실액	내역
출연금	1,339,000,000	1.개인 출연금(29명)	장학금	212,881,800	장학금 33,000,000 연구비 28,727,000
이자수입금	297,958,442	1.1997년 이자수입 116,809,205 2.1998년 이자수입 181,149,237	연구비	5,976,800	야구부 지원금 163,700,000
차입금	4,000,000	1.차입금액 4,000,000	일반회계	44,193,548	1.1997년 4월경 회계월 24,106,403 2.1998년 10월경 20,087,145
			분별비	1,328,886,598	1.1997년 4월경 회계월 24,106,403 2.1998년 10월경 20,087,145
합계	1,629,958,442		이월금	1,328,886,598	1.1997년 4월경 회계월 24,106,403 2.1998년 10월경 20,087,145

(별표2) 일반회계 결산서 1997.11-1998.11.30

과목	실액	내역	과목	실액	내역
출연금	351,500,000	1.개인 출연금(30명) 244,000,000 2.기타 출연금(21주) 87,500,000	야구부지원금	183,346,700	1.1997년 지원금 118,600,000 2.1998년 지원금 65,148,700
이자수입금	42,180,486	1.1997년 이자수입 19,403,346 2.1998년 이자수입 22,777,140	모교지원금	3,840,000	1.1997년 지원금 3,840,000 2.1998년 지원금 0원
			기타지원비	7,340,000	1.1997년 지원금 7,340,000 2.1998년 지원금 0원
			대여금	25,383,800	1.1997년 대여금 4,000,000 2.1998년 대여금 21,383,800
합계	393,680,486		이월금	173,197,898	1.1997년 대여금 4,000,000 2.1998년 대여금 169,197,898

(별표3) 동창회 이관분 결산서 1997.11-1998.11.30

과목	실액	내역	과목	실액	내역
장학금	76,471,000	1.1997년 장학금 76,471,000	야구부지원금	29,992,000	1.1997년 야구부 지원금 10,000,000 2.1998년 야구부 지원금 19,992,000
			모교지원금	19,400,000	1.1997년 모교지원금 19,400,000 2.1998년 모교지원금 0원
			기타지원비	18,900,000	1.1997년 기타지원비 18,900,000 2.1998년 기타지원비 0원
			대여금	1,012,000	1.1997년 대여금 1,012,000 2.1998년 대여금 0원
			기타예금	1,012,000	1.1997년 기타예금 1,012,000 2.1998년 기타예금 0원
합계	76,471,000		합계	76,471,000	

이사·감사 명단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는 다음과 같다.

▲이사=▷金根俊(1회·본부교문·임기 2년)▷權五賢(1회·본부교문·경성대재단이사장·임기 2년)▷鄭昭永(6회·본부회장·임기 2년)▷趙大濟(7회·전 사무국장·본부회장·협성개발 대표·임기 4년)▷金三顯(7회·행림한의원장·임기 2년)▷金鳳吉(8회·경남고교

장·임기 2년)▷韓東大(9회·본부부회장·한동대신경정신과의원장·임기 2년)▷金鍾柱(10회·전 본부사무국장·임기 2년)▷崔得鎬(11회·본부사무국장·임기 4년·상임)▷韓福朱(15회·전 본부회장·임기 2년)▷朴載祥(22회·본부부회장·임기 2년)
▲감사=▷朱範國(5회·직전 본부회장·임기 2년)▷方奉佑(10회·안건회계법인 대표이사·임기 2년)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문가... 공무원 변신

朴俊植(23회) 부산시 외자유치특보 영입

「금융의 종합예술」이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문가인 朴俊植동문(23회·사민)이 최근 공무원으로 변신, 부산시 외자유치특보보좌관으로 발탁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배동문 여러분, 자문과 충고에 힘을 얻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고향경제의 회생을 위해 신명을 바칠 각오입니다』

朴동문은 부산정보단지 등 부산시의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원활유치적인 외자를 끌어들이는 실

무지휘자. 그래서 20년 넘게 외자유치 관련업무를 처리해온 국제금융통인 朴동문을 부산시가 아웃 소싱(외부 전문인력 활용)한 케이스다.

朴동문은 요즘 현황파악에다 외자유치와 관련된 인맥 점검, 각종 관련 세미나 참석 등으로 몹시 바쁘다.

朴동문의 설명에 따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신용도 △사업수익성 △환경·법적·건설과정상 리스크 극소화 △차입자금 성격 △차입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후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의 종합예술」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향만과 천혜의 관광자원 등 부산이 품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자산으로 삼아 외자유치에 승부를 걸겠다』고 말했다.

朴동문은 서울대 영문과와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삼성그룹 비서실 국제금융팀 과장, 삼성물산 국제금융과장, 미국 퍼스트 내셔널 시카고 은행 서울지점 지배인, 한솔중금 상무이사 등을 지냈다.

宋勝久(17회) 늘원문화상 학술상

宋勝久동문(17회·부산대 교수)은 지난 11월 28일 부산 늘원소극장에서 열린 제38회 늘원문화상 시상식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부산대 공대 화공학과 교수로 27년간 봉직하고 있는 宋동문은 기능성 감미료, 산업폐수처리 및 장치, 고분자 신소재 개발 등에 많은 연구업적을 쌓았다.

미국 어번대학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은 宋동문은 Wayne대와 Auburn대에서 교환교수로 활약했고

통상부 기술개발 운영위원 부산대 공대학장 산업대학원장 환경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도근(18회) 산업평화상 금상

임도근동문(18회·삼공사 전무이사)은 지난 11월 18일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부산시산업평화상 시상식에서 기업인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동아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임동문은 이번에 노사화합을 통한 직장의 융합과 단결, 근로자 복지증진, 생산성 향상 등에 전력을 산업발전

崔光在(23회) 시 상수도본부 자문위원

崔光在동문(23회·경남엔지니어링 대표)은 최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자문위원에 위촉돼 1년간 시운영에 들어간 명정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인 입상활성탄 시스템 운용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동아대와 연세대 대학원 화공과를 졸업한 崔동문은 활성탄소 제조 응용 연구분야에 깊이 관여, 활성탄소 및 환경전문가로서 국내외학회 및 국제세미나에 수석회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동아대 화학공학과 겸임교수이며 동아대 화학공학과에 출강하고 있

재경동창회
22일 개최
연가홀에서 첫음악회 감상한후 축배

재경동창회 99 신년회가 22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종로5가 「연가홀」에서 금년새끼 지휘의 유라시안 챔버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용마가족 신년음악회」를 겸해 열린다. 음악회를 겸한 신년회는 재경동창회 창립 이래 초유의 행사로 그간의 호열개회 관행을 과감히 깬 「큰 변화」의 첫 장으로 기대가 크다.

安又萬회장(10회·변호사·전 법무부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행사는 리셉션에 앞서 먼저 금년새끼 지휘의 유라시안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비발디의 사계중 「겨울」과 차이코프스키의 「세레나데」 등을 1시간 20분간에 걸쳐 감상한 후 리셉션축배, 「자랑스런 용마상」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된다.

신년음악회 예매권은 4백60석 한정이기 때문에 미리 재경사무국(02-783-0072)이나 재경 각 동기회 총무를 통해야만 구입 가능하다. 음악회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한 동문은 연주가 끝난 오후 8시30분 이후 신년회 리셉션에 참석하면 된다.

김순규(26회) 재경동창회 총무 발탁



동기생인 전임 김용찬동문은 미국

에 진출, 개인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사직했다.

신임 김총무는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대우자동차와 금성사(LG전자), 국내 TECH 이사, 덕영조정 상무 등을 역임했다.

김총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현대감각에 맞춰 발로 뛰는 총무가 될 것을 다짐했다

趙元濟(16회) 서울국세청 재산세국장



발탁됐다.

趙元濟동문(16회)은 조세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국장) 제임 중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국장으로

경희대 법대를 졸업한 趙동문은 홍성 및 복인천세무서장 국세청 조사담당관 총리실 세정담당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은후한 성품의 趙동문은 매우 딱딱한 세정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친절한 매너와 부하직원에 대한 예정이 남달라 안팎으로부터 신망이 두둑다.

98년 회원명부 재경, 새로 발간

재경동창회(회장 安又萬·10회)는 최근 「98년 회원명부」를 펴냈다. 이번 명부는 96년 이후 동문들의 변경



98년 회원명부

된 주소·직장 등을 정리, 재경사무국 회원관리 데이터 베이스(DB)를 파일 변환하여 그대로 출력해 인쇄한 것이다(사진).

98년 재경명부는 표지부터 일신됐다. 모교 전경을 유화로 구성한 표지 그림(이무용·17회)은 웅장미 속에 신선미와 색조감을 더해 주고 있다.

본편 명단 앞에는 그간의 각종 행사를 화보로 꾸민고 각 동기회별 명단 첫 장 등 여백을 추억의 사진들로 편집했다. 부록은 △재경은사 주소록 △재경 임원·이사 △재경 동기회장·총무·동호인회 임원 △본부동창회 임원·동기회장·총무 △지역회 임원 △뉴욕 등 19개 해외지역 명단 △직업별 명단 △동문이름 찾기 등으로

여어져 있다.

공모에서 은상을 받는 등 창의력이 뛰어난 세무공직자로 인정받고 있다.

제21회 승년산행

제21회동기회 이일산우회는 지난 12월 20일 경남 울주군 대운산(742m)에서 마산지역 동문들도 다수 참가한 가운데 승년산행을 했다.

정영천산우회장이 리드한 이날 산행은 서창 들머리에서 큰 굴을 따라 정상에 올랐다가 시명산으로 내려와 명곡으로 빠진 6시간 강행군. 시명계곡 합수골에서의 만두떡국 점심요기는 별미중 별미. 일행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강수경동기회장이 마련한 뒤풀이 행사까지 즐겼고 새해부터는 매달 4째주 일요일에 정기월례산행을 하기로 결의했다.

는 崔동문은 KS표준검사기준 전문위원 중소기업청 기술지도위원 기술혁신개발사업 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다.

李浚星(30회) 동울산세무서장



李浚星동문(30회)은 경남 밀양세무서장 제임중 최근 동울산세무서장으로 영전했다.

부산대 경제과를 나온 李동문은 대학 4년때 행정고시(23회)에 합격했고, 졸업 후 재무부 세계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부산지방국세청 특별조사1과장 및 감사관 국세청 전산조사계장 등을 지냈다.

李동문은 95년 공무원 우수청안



“명가수
다도 있네”
본부주최 용마의 밤
축제에서 동문들이
무대에서 노래와 장
기자랑을 펼치고 있
는 재주꾼(?)들에
게 격려를 보내고 있
다.

반가운 마음 마음들 “활활”... 본부 「龍馬의 밤」 대성황

본부동창회 「98 용마의 밤」 축제가 임시총회를 겸해 지난 12월 11일 오후 6시30분 부산 코모도호텔 중무홀에서 열렸다. 이날 축제에 앞서 열린 임시총회는 의안 심의에서 이사회를 통과한 회칙중 개정회칙안을 승인했다.

鄭昭永본부회장(6회·정소영치과의원장)이 주재한 이날 축제에는 趙大濟본부회장(7회·협성개발 대표)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전원과 각 동기회장, 각 지역회장, 경남모직 사장을 지낸 林相旭(3회·전 본부 사무국장), 올해 용마대상 수상자인 부산예술문화대 학장 禹明洙(5회·전 부산시교육감), 金京喜재경고문(9회·용마공영 대표), 국회의원과 부산시장을 역임한 文正秀(12회·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장), 국회의원 權哲賢(19회), 재경동창회 사무국장 김영해(23회)·직전총무 김용찬·신임총무 김순규동문(이상 26회) 등 7백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용마대상 등 시상 “영광 재창출” 결의 큐브시스템 생중계

사회로 진행된 축제 1부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 용마가족의 화합과 결속에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가 앞장서겠다』며 『용마가족 여러분도 적극 동참하여 미래를 개척할 차기 지도자를 배양해 다시 영광을 되찾는 준비를 단단히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鄭회장은 모교야구의 전국최강자 고수와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사제도 기꺼이 폐척하겠다고 천명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축제 전 과정은 무대 좌우에 마련된 대형 큐브시스템을 통해 생중계돼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관련기사 6면

鄭회장은 개회사에 앞서 유공자 표창을 통해 제8회 용마대상 수상자인 禹明洙고문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본부회장을 역임한 禹고문은 수상 소감을 통해 『용마가족의 이름으로 준 이 큰 상은 앞으로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더욱 기여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만큼 신명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30회 기별야구대회에서 우승한 중년부 제15·20회 합동팀, 장년부 제22회, 청년부 42회에 각각 우승기를 수여했다. 또 준우승한 제16회·19회 합동팀, 제33회, 제39회에 준우승컵을 전달했다.

참석동문들은 끝으로 鄭회장의 선창에 따라 축배를 든 후 노경보(33회) 백창봉동문(41회)의 더블MC와 7인조 실내악단의 경쾌한 밴드 플레이, 초청 무희들의 발랄한 춤, 동문 가수들의 노래와 장기자랑 등으로 위어진 제2부 한마당을 관람했다.

추억의 노래·장기자랑 “열광” 교가합창 뉴욕 한겨울 달귀

신임회장 김종은(19회)

미국 뉴욕지역동창회 98년 정기총회겸 송년잔치가 지난 11월 28일 저녁 뉴저지 Palisadium 대원에서 동문·가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대양회장(17회)이 주재한 이날 행사 1부 총회는 4년째 총무 및 재무를 맡고 있는 김대현동문(29회)의 경과보고에 이어 결산 및 예산안을 승인했고 임원 개선을 통해 황정옥동문(10회)이 제청한 김종은동문(19회·진한식품 대표)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용마가족이 항상 하나됨을 인식할 수 있게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겠다』며 『어느 동창회보다 앞서는 경남중고동창회가 되도록 더욱 힘

을 합쳐 나가자』고 말했다.

미국 동부지역을 대표하는 뉴욕동창회는 해마다 송년회를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 선배동문과 가족들간의 우의와 결속을 재확인하고 있다.

올해 잔치는 Thanks giving day 연휴 마지막날을 잡아서인지 반가운 얼굴들이 더러 보이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았으나, 참석한 용마가족들의 훈훈한 정은 여느해보다 뜨겁게 달아올랐다.

2부 여흥에서는 필라델피아에서 온 정태치동문(16회) 등 많은 재주꾼들이 저마다 비장의 노래와 장기를 한껏 발휘해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집행부가 마련한 푸짐한 선물이 모든 동문들에게 고루고루 전달,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관령 넘어 단숨에 달려왔네” 원주서 꽃피운 「강원형제애」



대관령 넘어온 동창애...원주지역송년회에 원주를 비롯해 황성 재천 영월 홍천 등지의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우정을 재확인하고 있다.

원주지역동창회는 지난 12월 14일 오후 6시30분 강원 원주시 단계택지의 「최산애」에서 원주를 비롯, 황성 재천 영월 홍천의 동문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98년 송년회를 베풀었다.

윤희정회장(15회·(주)수한 대표)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서 동문들은 지난 한 해의 IMF고통을 입을 모아 실토히면서 우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윤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에는 자주 모이는 동창회가 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동약건설 전무인 김원경동문(12회)은 다가오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해 노후 집단 휴양사업에 매진, 동문들의 동참을 권유했다.

특히 연세대 매지리 부총장인 김종

수동문(14회)은 연임축하 인사를 받느라 한동안 분주했다. 부총장 연임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김종문 경우 뛰어난 지도력과 학사관리 능력을 높이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홍천경찰서장인 이명규동문(24회)은 금년 3월 부임한 이래 40분 거리의 원주까지 마다하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창회 모임에 개근해왔다. 이날도 일찌감치 도착, 선배동문들과 흥분을 떨어냈다.

이날 참석자는 우철동(10회) 김원경(12회) 김종수(14회) 윤희정(15회) 윤강목(18회) 이한석(21회) 이명규(24회) 이재봉 이종배 이경국(이상 26회) 주영규(27회) 박용수(28회) 김종은(29회) 등.

「가는 정」 아쉽고 「오는 정」 정겨워

도쿄지역 송년회

일본 도쿄지역동창회는 지난 12월 3일 오후 7시 赤坂 「チョイ」에서 동문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98년 송년회겸 귀국동문 환송회를 열었다.

金光信회장(16회·SUNPACK(주)대표취체역 전무이사)은 인사말에 이어 수년간 동창회발전에 심혈을 쏟고 귀국하는 柳鎭參부회장(17회·제일은행 도쿄지점장)과 白善旭(28회) 李相權동문(35회)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朴부회장의 지난 1년간을 회고하는 고별사는 참석자 모두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권주가 잦아지면서 가라앉은 분위기도 되살아났고 건승을 빌었다.

한편 이날 잔치에는 얼마전 도쿄 베텐스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李在鎭동문(16회)과 삼성회재의 鄭圭弘동문(30회)이 참석, 도쿄동창회 새 식구가 된 것을 신고해 박수를 받았다. 具滋源동문(28회·국민은행 도쿄지점)은 본점 감사 관계로 이날 상견례를 못했다.



합포만에 뜨거운 우정 “출렁”

馬·昌지역 용마의 밤

마산·창원지역동창회는 지난 12월 18일 오후 7시 경남 창원시 중앙동 인터내셔널호텔 국제회의장에서 송년잔치인 「98 용마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모임은 부부동반 1백7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李洙昌마창회장(17회·경창관광 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IMF한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성원을 변함없이 보내준 동문·가족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화합하고 결속할 것』을 당부했다.

1부 기념식은 이어 4개 직능회가 모금한 후원금 전달, 鄭昭永본부회장(6회·정소영치과의원장) 격려사, 孔民培창원지사장(27회) 축사, 목윤성고문(8회·울림리조트호텔 대표) 축배

선창 등으로 진행됐다(사진).

이날 본부에서는 鄭회장을 비롯, 崔得鎬국장(11회) 金炳秀총무(22회) 등이 참석, 축하했다. 본부동창회에서는 비디오 1점을 협찬했다.

2부 여흥은 정승수간사장(19회·태완건설 대표)의 사회로 진행, 동문·가족 노래 및 장기자랑, 행운상 추첨 등으로 펼쳐졌다.

「영일만 친구」들도 흐뭇한 잔치상

포항지역동창회 송년회가 지난 12월 11일 오후 7시 경북 포항시 상도동 「대왕복집」에서 열렸다.

金眞豪회장(12회·포항MBC 사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40여명의 동문이 참석, 화합을 다졌다.

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역대 동문과 가족들이 어려운 경제한파속에 유난히도 변화를 많이 겪었

다』며 『힘들 때 일수록 용마가족은 서로 도우며 지혜롭고 건강하게 생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일행은 2부 한마당에서 그동안 다져졌던 동문간의 우의를 소중전에 담아 나누며 교가를 비롯해 추억의 노래와 장기자랑 등으로 송구영신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기회 새 집행부

제11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吳鍾錫

 제11회동기회 98년 정기총회 겸 송년회가 지난 12월 10일 부산 중구 부평동 본부동창회관 14층 「골든뷰에」에서 열려 吳鍾錫동문(부산대 교수·사진)을 신임회장에 선출했다.

吳完朱회장(대한계장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동문·가족 50여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이어 일행은 송년여흥에서 축배를 들고 노래와 장기지랑, 덕담으로 희망찬 새해맞이를 다짐했다.

재경11회 임원개선
회장에 孔相基

 제11회재경동기회는 지난 11월 27일 오후 7시 서울 타워호텔 로즈룸에서 98년 정기총회를 열고 孔相基동문(부천세종병원 부원장·사진)을 신임회장에 선출했다.

李瑞雨회장(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 및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개선을 통해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동문들은 2부 여흥 시간에서 소중함을 돌리며 추억을 되새겼고 노래와 춤으로 저무는 무인년의 아쉬움을 달렸다.



박기주 신임회장(왼쪽)이 허주열 직전회장으로부터 회기를 받으며 걸음을 다지고 있다.

진주가족 한자리에
새 회장 박기주 (18회)

 진주지역동창회는 지난 12월 18일 오후 6시 경남 진주시 내 동방호텔 무궁화홀에서 부부동반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98년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했다.


허주열회장(16회·축협 함양조합장)이 주재한 총회는 결산 및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개선을 통해 박기주동문(18회·옥포중 교감·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성호총무(23회)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 신임 박회장은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옥계한(12회) 허주열동문 등 전임회장과 손우석동문(23회)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2부 여흥은 가족 노래자랑과 행운상 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 ▲회 장=박기주
- ▲부회장=정순일(19회·경상대 의대 학장)
- ▲감 사=김채영(26회)
- ▲총 무=김성호(23회)

▲부총무=구구영(27회·수석) 김상용(31회)

제22회 총회 열어
회장 구자룡 선임

 제22회동기회 98년 정기총회겸 송년회가 지난 12월 16일 오후 7시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국제회관 크리스탈뷰에 연회실에서 열려 구자룡동문(구자룡치과의원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강성봉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부부동반 60여명이 참석, 결산 및 예산안을 승인했으며 회장을 새로 선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저무는 무인년의 아쉬움을 달래며 새해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서로 빌었다.

신임 구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실속있는 동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직능회와 지역동기회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2부 여흥은 송운섭동문의 사회로 부부노래자랑과 행운상 추첨 등으로 신바람을 일으켰다.

새
제언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



崔承浩
제36회
하중법률사무소 사무장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다. 숙성시킬 기간이 언제까지든 간에 새 부대에 술을 넣어 숙성을 시켜야 「제 술맛」이 난다는 것이리라.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술부대가 이미 그것이 사용된 것이라면 어떤 술을 새로이 부어 넣더라도 「제 술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우리의 삶도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과거가 이미 배일대로 배어서 오늘을 이루었고, 사람들이 때로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도 과거가 걸림돌이 되어 제대로 새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책임질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반평생을 살아온 나 같은 사람들이 한평생을 제맛이 나게 가지있게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같은 질문에 대하여 「인생의 술부대」는 그가 어떤 삶을 새로이 살고자 결심할 때 그 때 새로운 술부대가 준비된 상태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지나온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날마다 스스로를 깨끗이 밝히고 스스로가 책임감 있는

“지나온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를 깨끗이 밝히고, 스스로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제 술맛」이 나기 시작하고, 그런 생활이 남은 여생에 계속될 때 과거와 더불어 일평생이 가치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구제금융이란 전대미문의 괴물에게 나라의 모든 자존심을 빼앗기고 뒤늦게나마 우리 스스로가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닦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정치인인가? 재벌인가? 아니다. 우리가 닦할 것은 정치인도 재벌도 아닌 우리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끄러움과 좌절에 빠져 있어야만 할 이유도 없다. 실패를 거울로 삼고 스스로의 의지를 굳게 세우고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의 책임 아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일이 남아 있을 뿐이다. 새로운 삶에 대한 꿈과 각오를 새로운 몸과 마음에 담는 일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것이 삶을 제맛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니 경고재?」
가슴 울린
후배 사랑

육군병장 만기제대시까지의 군복무 시절은 한의대 만학생으로 지낼 때 만큼이나 내겐 아주 힘든 세월이었다.

당시는 정말 땀이치는 순간들이었다. 지금의 사병생활은 구타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아주 좋아졌다고 하나 그때 그렇지 않았다.

부전역 징집열차를 탔을 때 한 인솔 책임자가 몇 명을 본보기로 코피를 터주며 공포 속으로 몰고 갈 때부터 고생문 속으로 들어갔다. 되풀이되는 구타에 대한 두려움과 혹독한 시련의 눈산훈련소를 나와 병과교육을 거쳐 전방 병원부대에 배속되니 오히려 더 가혹한 군기의 위생병 졸병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말마다 푸닥거리(동기별로 세워놓고 야삽이나 배터 또는 주먹 등으로 타격하는 군기 세우는 행

사)와 나보다 어린 고참병, 소대장이 괴롭히는 내무반생활 등은 악몽(?)이었다.

백줄이라고는 팬티 고무줄밖에 없던 「원조 어둠의 지식」답게 그때까지 평생 47~48kg을 넘지 않던 몸무게도 신검장에선 무엇 때문인지 더 없어 통과시켜주고, 남 다 받던 교련혜택도 받지 못하여 33



李承河
제28회
이승하의원 원장

개월 몽땅 채워야 했다.

한창 물오른 유신치하에서 교련을 한 학기라도 F받으면 재수강하여 다시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6개월 단축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대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입대 후 그 사실을 알 나는 정말 앞이 캄캄했다. (이를 군의학교에서 만나 함께 훈련받던 같은 학교 공대를 나온 J군에게 얘기해 줬는데, 서울의 부잣집 아들인 이 녀석은 나중에 알고 보니 교무처에 돈을 써서 지우고 자기 혼자 6개월 먼저 제대했

다라).

10년 선배인 내과의 P소령을 만난 건 고달픈 내무반생활에 지쳐있을 때였다. 「니 경고 나왔나? 내 18회다.」 P선배는 사병중에 후배가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며 무척 반가워하며 격려했다. 그는 초면인 나를 돌봐주기 시작했다. 단지 경남고 후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드디어 내무반을 벗어나 열외생활(새로 생긴 특수부서 근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열외생활이란 군대갔다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은 건지 다 아는 일로, 덕분에 다시 공부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부탁하는 일은 무엇이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해결해 주었으니 P선배의 배려는 제대할 때까지 내내 큰 힘이 되었다.

어려운 시절 그 선배의 후배 사랑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정말 현신적인 아름다움으로 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동문이라면 오히려 믿지 못하는 요즘의 일부 세대에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기묘년 새해를 맞아 응마가족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본부동창회 임직원 일동

- | | | | |
|--|--|---|--|
| <p>고문
權五賢(1회) 경성대학교 이사장
金根俊(1회) 응마장학회 이사장
鄭錫植(1회) 재경동창회 명예회장
鄭樹鳳(1회) 동아대학교 전 재단이사장
金泳三(3회) 전 대통령
柳永烈(3회) (주)왕도 대표
宋斗瀾(3회) 한일친선협회 이사장
鄭相千(4회) 국회의원·자민련 부총재
禹明洙(5회) 부산예술문화대학 학장
朱範國(5회) 전 증권예탁원 사장</p> <p>회장
鄭昭永(6회) 정소영치과의원장</p> <p>부회장
金鍾淳(7회) 전 한국전북두운영공사 상임고문
趙大濟(7회) 협성개발(주) 대표이사
朴同烈(8회) 해운대성심병원장</p> | <p>孫世一(8회) 국회의원·국민회의 부총재
李昌圭(8회) 한국국제보훈협회 이사장
秋敬錫(8회) 전 건설교통부장관
丁亨權(9회) 부산가스개발(주) 대표이사
韓東大(9회) 한동대신경정신과의원장
吳剛旭(10회) 남천곡산 회장
柳興洙(11회) 국회의원·통일외교통상위원장
朴檀太(11회) 국회의원
吳完洙(11회) (주)대한계장 회장
李康雨(11회)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金光一(12회) 변호사·전 대통령 비서실장
金其春(12회) 국회의원
文正秀(12회)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전 부산시장
朴保國(12회) (주)은상사 대표이사
車秀明(12회) 국회의원
李相準(13회) 효산의료재단 이사장
李哲世(13회) 세양병원장
鄭文和(13회) 국회의원·전 부산시장
辛俊浩(14회) (주)롯데 헬스케어 부회장</p> | <p>鄭時榮(14회) 삼미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金學炫(15회) 세운기업(주) 대표이사
吳鳳錫(15회) (주)동일건축 대표이사
宋圭政(16회) 동명철강(주) 대표이사
韓利憲(16회) 국회의원
鄭亨根(17회) 국회의원
崔萬植(17회) 대한스위스화학 대표이사
金俊吉(18회) 한양공업(주) 대표이사
權哲賢(19회) 국회의원
南珍鎭(19회) (주)신라관광 대표이사
李龍欽(19회) (주)일신실계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金大源(20회) 한도실업 대표이사
金重源(20회) 한일그룹 회장
金炳坤(20회) 국회의원
盧基太(20회) 국회의원
姜昌洙(21회) (주)태경유통 대표이사
金漢星(21회) 건설재해예방연구원 이사장
朴載祥(22회) 천일여객(주) 대표이사
李仁俊(22회) 부산시 중구청장</p> | <p>朴基旭(23회) 삼오정 대표
徐榮秀(23회) 대영호텔 대표
金武星(24회) 국회의원
元東慕(24회) 동남개발(주) 대표이사
朴鍾雄(25회) 국회의원
徐秉洙(25회) 우진서비스(주) 대표이사
徐夏洙(30회) 부일석유(주) 대표이사</p> <p>감사
姜鎭平(10회) 부광산업(주) 대표이사
韓炳作(13회) 부일합동법무사 대표
金元泰(18회) 김원대회계사무소 세무사
朴哲秉(23회) 산동회계법인 부산경남 본부장</p> <p>사무국
국장 崔得鎭(11회)
총무 金炳秀(22회)</p> |
|--|--|---|--|

경거망동 하지 않으면 만사형통 누리고...

토끼에 속박 걸

토끼는 우리나라 설화 동물담중 호랑이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괴재이다. 12간지중 4번째이고 방향에서는 동쪽을 가르키며 오행에서는 나무(木)를 뜻한다.

박창호

제24회

부산일보

편집부국장 겸 사회부장



우리 설화를 볼 때 토끼에 대한 상징과 화제성은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별주부전」 「토끼와 거북의 경주」 이야기는 어린시절 누구나 한 번쯤 들던 것이었고 호랑이에게 알을 빼앗겨 울고 있는 까치를 도와주는 「까치와 토끼」 설화도 귀 설지 않다. 또 있다. 호랑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



르쳐 주겠다고 동지선달에 꼬리를 연못에 담그게 해 풍뎡이처럼 하는 얘기, 맛있는 떡을 주겠다고 호랑이에게 불에 달군 돌은 먹이는

얘기는 신바람마저 나게 만든다.

약한 토끼가 강한 호랑이를 혼내주는 이야기가 많은 것을 보면 반상의 차별이 심했던 시절 서민들이 이 설화를 통해 양반의 횡포를 부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이다.

부정적인 이미지도 없지 않다. 정월의 첫 묘(卯)일, 즉 토끼날에는 남자가 먼저 일어나 대문을 열어야 좋고 여자가 먼저 열면 불길하다는 풍습이 그것이다. 토끼의 경망스런 이미지를 여자에 결합시킨 것으로 보이나 토끼띠 남자의 여성관은 이와 다르다. 그래서 토끼해에 토끼띠 인생이 지켜야 할 점은 뻔하다. 매사에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다.

더더욱 역사상 1627년 정묘호란을 제외하고 토끼해에 큰 흉사가 없었다고 하니 경거망동만 하지 않으면 용마기죽들도 만사형통이었다.

제1회 기벌대항 골프대회 "클린 샷"

단체우승 제20회 영광

윤정환(27회) 그랑프리

동기회를 대표하는 골퍼들의 「화합의 클린 샷」이 초겨울 부산의 통도 C.C 초원에서 장쾌히 펼쳐져, 용마가족의 영원한 우정과 결속력을 재확인했다.

지난 12월 3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본부동창회 주최 제1회 회장배경탈 기벌대항 용마골프대회가 라운딩 때 감격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숙원의 첫 대회는 14개 동기가 출전, 대표골퍼 60명으로 15개조를 만들어 옥윤석동문(16회) 주관 아래 실력을 겨뤘다.

응원동문 등 1백여명의 갤러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전을 벌인 결과 단체전 우승의 영광은 제20회가,

개인전 우승은 윤정환동문(27회)이 차지했다.

단체우승 제20회는 이날 최고 스코어 75타로 메달리스트가 된 현희수동문 등이 분발해 모두 2백42타를 기록, 1타차로 끈질기게 추격해온 제19회를 따돌리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 제19회는 2백43타로 준우승에, 노장 제13회는 2백45타로 3위를 마크했다.

대림초등학교(6회·정소영치과의원장)은 이날 오후 6시 대회장 그늘에서 거행된 시상식을 주재하고 폐회사를 통해 「대망의 대회 개최가 안팎의 여러 사정 때문에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앞으로 본부에서는 참여 동기회의 저변확대에 힘써 제2회 대회 때부터는 모든 동기가 출전해



화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전선수 및 대회운영 관계자, 응원동문 등은 뒤풀이행사를 통해 용마골프대회가 더욱 성숙되도록 적극 성원할 것을 결의했다. 개인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우승=윤정환(27회·-2.2)
- △메달리스트=현희수(20회·75타)
- △준우승=박병선(14회·-1.4)
- △3위=김경남(24회·-1.2)

용마골퍼들이 구암3일 부산의 통도 C.C.초원에서 개막된 제1회 기벌대항 골프대회에서 라운딩에 돌입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4위=김두천(26회·-1.2)
- △5위=송수웅(17회·-0.6)
- △근접상=현희수(20회·2.2m)
- △장타상=김승일(15회·210m)
- △행운상=양동건(18회) 이성구(26회)

집」에서 열렸다.

金永吉기우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국은 張동기회장을 비롯 姜象熙재경기우회장 등 30여명의 기사들이 참석, 실력을 뽐내며 대접전을 펼쳤다.

A, B조로 나눠 토너먼트로 치른 대국에서 A조는 우승 張淸(아마 4단)·준우승 李相燮동문(아마 5단), B조는 우승 曹東久(아마 초단)·준우승 安性文동문(아마 3급)이 각각 차지했다.

재경 용마바둑대회 제29회 왕중왕

제15회 용마바둑대회(단체전)가 지난 11월 15일 오전 9시 남산 타워 호텔 켈코바룸에서 용마기우회(회장 서정환·14회·이공교역 대표) 주관으로 열려 제29회재경동기회가 대망의 왕중왕에 등극했다.

부산선수까지 동원한 제29회는 박인근 선석기 강성훈 김대욱 조윤제 등이 선전, 4국 전승의 위업을 쌓았다.

스위스 리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국에서 2~5위까지는 모두 각각 3승1패를 기록했으나 승수를 비교해 순위를 결정한 결과 2위 제25회, 3위 제23회, 4위 제22회, 5위 제28회가 차지했다.

이날 대회는 선수 70여명과 각 동기회 응원단 등 1백20여명이 참석, 열기에 가득찼다. 대국은 14게임으로 나눠 진행됐다.

용마기우회 강철민고문(11회·프로그사 8단)과 양건모 백홍수동문(이상 14회) 등 프로그사들이 출전자들을 격려했다.



뜨거운 한판 열전... 제12회 동기회의 송년바둑대회에서 동문기사들이 장고와 장고를 거듭하며 수업을 주고 받고 있다.

제12회 바둑대회 우승 서병기·곽삼덕

제12회동기회(회장 趙哲元) 송년 바둑대회가 기우회 주관으로 지난 12월 5일 오후 1시 부산 중구 부평동 구덕기원(鄭鐵泰동문 운영)에서 열렸다.

金喆基기우회장(변호사)이 주재한 이날 대회에서 A조(3급 이상)는 우승 徐炳基·준우승 俞炳鎔·김투상 金相熙 柳秉行동문이, B조(4~5급)는 우승 郭三德·준우승 文永哲·김투상

李守永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서울 포항 대구 등지 기사들도 다수 출전한 이날 대국은 그야말로 열전의 도가니였고, 응원군들은 한편의 맛갈 넘치는 술상에 모여 덕담환수를 즐겼다.

제13회 행복한 경부手談 우승 장청·조동규

제13회동기회(회장 張淸) 경부친선바둑대회가 기우회 주관으로 지난 12월 5일 오후 5시부터 6일 오전까지 양일간 부산 동구 수정동 「청정횃

山上족구 "신바람" 제31회 금정신행

제31회동기회는 지난 11월 22일 금정산에서 13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동반대회를 열었다.

朴瑞珠회장이 주재한 이날 산행은 식물원입구~동문~남문 코스였다.

한편 남문마을에서 점심식사를 한 일행은 2명씩 짝을 지어 가위 바위 보로 조로 나눠 족구경기를 펼쳤다. 특히 崔海永동문이 대표한 팀은 崔동문의 다리부상과 안경 파손 등 불상사로 아쉬움을 남겼다.

제1회동기회 임원명단

고문 郭正出 朴嬉太 徐根照 安康泰 吳完洙 柳興洙

회장 吳鍾錫

부회장 金達經 金炳基 金重河 廉漢鎬

李明 李聖光 崔亨旭 甘錦讚 姜文東 金東守 金鍾正 金寅寅 金仁變 金南植 朴聖佑

朴昌星 潘泰柱 申允業 梁允錫 吳雄動 李吉相 李相在 李李相 張英在 鄭光權 池千準 崔金得

崔錫煥 韓榮圭 玄正春 洪起煥

감사 崔永守

총무 金東式

동기회 사무실: (051)464-3511

본부 「용마의 밤」·각 동기회 송년축제 이모저모

지난 12월 11일 오후 7시30분 부산 코모도호텔 중무홀에서 개막된 본부동창회 「98 용마의 밤」 축제 2부 여흥한마당은 무대 좌우에 설치된 대형 큐브시스템의 행사 생중계로 더욱 흥을 돋웠다. 이날 큐브시스템은 행사장 분위기가 전부 생중계됐는데, 모교의 발자취·야구부 활동상·동창회 주요 행사 등과 행사장 분위기 전부를 방영해 분위기를 일체감 넘치게 했다. 특히 피날레를 장식한 옥윤석 동문(16회·동기회 사무국장)의 「용마의 결의」 낭독은 축제의 대미를 의미있게 마감했다.

7인조 실내악단의 흥겨운 밴드 플레이로 시작된 여흥은 하현보동문(33회·부산예술문화대 교수)의 총감독 아래 노경보(33회) 백창봉동문(41회)이 MC를 맡아 진행했다.

이 묘기에서 권동문(국회의원)이 남성심벌을 제일 잘 연출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전국최고 용마」 합창

○...이어 용마가족들은 MC를 맡은 노동문이 「여자여자여자」곡에 「전국최고 용마」를 개사(改詞)한 〈서로를 위하여 용마/ 남아대장 우리 용마인/ 대한민국 어느 곳에/ 우리 용마 용마/ 국민 모두 알아요/ 정재계/ 법조계 의학계/ 노동계 어디든지 있어요/ 우리 용마인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서로를/ 위하여/ 우리들 경중 경고 용마/ IMF를 극복하는 용마/ 경제를 살리는 용마/ 우리 경중 경고 용마)를 합창해 일체감을 조성했다.

최다참가상 31회
상금 30만원 「핑제」

○...이날 최다참가상 순위 결정에서 제16회와 제31회가 시소를 벌였다. 제일 많이 나온 결로 알려진 제16회가 제31회와 인원 파악 결과 23명이었고 제31회가 26명.

제31회는 상금 30만원을 받았고 제16회는 특별상으로 동기회사무국장용 고급 카메라 1대를 받았다. 특히 제31회는 부부동반까지 동원해 인기를 모았다. 부인들은 참가상 인원에 배제됐다. 동기회에서는 행사 후 동기회 송년회를 위해 공문까지 보낸 터라 해프닝이 빚어졌다고 해명.

임을수 (8회) 행운대상

○...행운상 추첨은 모든 동문들의



열창무대... 제43회 대표가수(?)가 98 용마의 밤 여흥무대에서 백댄서들의 응원속에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관심을 집중했다. 이날 행운대상은 鄭永本부회장 협찬의 VTR을 입을 수동문(8회)이 수상했고, 최광렬동문(43회) 등 30여명의 동문들이 값진 행운상을 수상했다.

전국서 축전·화환
무대 뒤 숨은 일꾼 격려

○...이날 불참한 여러 동문들이 축전을 보내왔고 행사 진행을 위해 뒤에서 열심히 일한 동문들의 노고가 돋보였다.

국회일로 불참한 柳興洙동문(11회·국회의원)등의 축전이 쇄도했다. 옥윤석동문(16회·동기회 사무국장)이 행사 전반에 걸쳐 자문을 했고 큐브시스템을 운영한 전인수(37회), 사회를 맡은 노경보(33회) 백창봉(41회), 행사 사진촬영을 도맡은 동의대 학보사 주간인 최성우(40회 총무), 무대감독을 맡은 하현보동문(33회)등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막동이 제45회 참석 전무
"특별 정신무장훈련 필요"

이날 정연에서 대상은 「혼적」을 부른 천기주씨(이광연동문 부인)가,

1백30여명 熱氣 충전

제17회 세모잔치
직능회 찬조로 꾸며

제17회동기회는 지난 12월 29일 오후 6시30분 부산 연제구 연산동 코리아나뷔페 연회장에서 동문·가족 1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었다.

文錫雄회장(경성대 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각 직능회 찬조금민으로 송년잔치를 알뜰하게 치를 수 있게 돼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金武夫 직전회장과 얼마전 수필가로 등단한 崔聖湖동문(최성호비뇨기과의원장)에게 각각 감사패와 기념패를 증정했

○...이번 행사에는 동기회별로 참석률이 예년에 비해 낮았다. 특히 동창회 막동이기수인 제45회에서는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아 특별훈련(?)이 필요하다는 증언.

방명록에 따른 참석률은 △제1회~10회 경우 25.7%, 제11회~20회 34.1%, 제21회~30회 12.2%, 제31회~40회 21.3%, 제41회~45회 6.7%로 앞으로 독려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음용마상 고의로 개편
행사장 한때 소동

○...행사장 분위기를 깨뜨린 사례도 더러 있어 씁쓰레한 뒷맛을 남기기도. 모동문은 폐막 직후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 입구에 세워둔 얼음으로 조각된 용마상을 고의로 밀어버렸다. 쿵! 하면서 아이스케빈이 깨뜨려졌고 퇴장하던 동문들이 미끌어졌으며, 얼음조각과 물이 튀는 등 소동을 벌였다.

그러나 모동문은 사과 한 마디 없었고 모두들 「무슨 심술인지 모르겠다」며 빛나간 행동에 혀를 내둘렀다.

금상은 이명숙씨(김의용동문 부인)가 각각 차지했다.

제31회 동문·가족
최다 참가상금으로
송년기본 「만끽」

제31회동기회는 지난 12월 11일 본부동창회가 마련한 「98 용마의 밤」 행사를 마친 후 서구 동대신동 千瓊浩동문이 경영하는 「박카스단란주점」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朴瓊浩회장(양산위생공사 관리부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99년 제경동기회장을 맡은 徐敏誠동문(텍

스웰 대표) 등 22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했다.

특히 본부동창회 「98 용마의 밤」 행사에서 받은 최다참가상(상금 30만원)으로 잔치분위기를 고조시켰다. 全瓊浩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축제는 어려움에 지쳐있던 동문·가족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제15회동기회 송년회
부산·서울서 재회

제15회동기회는 지난 12월 14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국제호텔 용마홀에서 동문 42명과 부인 12명 등 모두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었다.

안충용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김승일 총무의 사회로 진행.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나누고 부인들 중심으로 엮여지면서 가전품 등 갖가지 기념품을 시상했다.

한편 재경에서는 같은 달 21일 저녁 잠실 롯데월드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김승평회장은 이날 행사를 주재하고 이날 직전회장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정 총 동기회관운영위원장 박호문총무에게 동기회관 인수와 관련, 감사패를 전달했다.

2부에서는 김영찬동문(분당 제생병원비뇨기과과장)의 「건전한 성을 위한 50대의 건강」이란 주제의 특강에 이어 여흥을 가졌다.

제20회 심야 누비며
가는 세월 푸념

제20회동기회는 지난 12월 18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희락한정식」에서 송년회를 열었다.

金大源회장(한도실업 대표)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42명의 동문이 참석,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동문들은 오랜만의 재회를 통해 회포를 풀었고 2차 3차까지 이어져 우정을 돈독히 했다.

崔載九 본부고문(3회) 별세



崔載九 본부고문(3회·한나라당 상임고문)은 지난 12월 28일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수확으로 별세했다. 향년 69세. 崔동문은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후 정계에 입문했고 8, 9, 10, 12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역량을 발휘했다. 국민당 부총재 공화당 부총재 민자당 상임고문 신한국당 및 한나라당 상임고문 산업은행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1백여 잉꼬부부 행복한 고향

노래대상 천기주씨
금상 이명숙씨 차지

제14회동기회 98년 송년회가 지난 12월 18일 오후 6시30분 부산 연제

구 거제동 국제회관 크리스탈뷔페에서 1백여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사진).

정시영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김건호총무의 사회로 진행, 1부 기념식·2부 노래자랑 순으로 꾸며졌다.

제26회 동기회 임원명단

- 회 장 朴壯賢 대성조경·북한음식 대표
- 부 회 장 蔣景在 대동병원 방사선과 과장
- 감 사 申在鎬 삼성여고 교사
張元鏞 변호사
- 총 무 權海國
金泰年 (주)태영엔터프라이즈 대표
- 고 문 朴載旭 천일개발 전무
李柄玉 한겨레치과의원장
朴相浩 광신건업 대표
金斗泉 동성제분 대표

- 全海龍 (주)해룡전기 대표
- 趙萬石 태승실업 부사장
- 朴鏞碩 변호사
- 姜仁伯 동흥실업 대표
- 朴權秉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李成求 유창삭도(주) 상무
- 秋昌求 한겨레치과의원장
- 金相賢 대성산업 대표
- 金澤暎 한겨레치과의원장
- 李圭龍 남진교통 부장

- 이 사 李喆學 대준건설 대표
- 朴相浩 박상호정형외과의원장
- 河盛鳳

- 姜秀男 동서건축사무소장
- 朴東基
- 徐耕浩 대우전자 부산지사장
- 崔炳武 동아의대 정신과 의사
- 金龍洙 새로미 대표
- 朱圭哲 중앙여고 교사
- 安修正 우성사약국 대표
- 朴判基
- 金중우 신광물산 대표
- 成在業 규보교역 이사
- 文相奎 해운대여고 교사
- 崔 炫 최치과의원장

제3회(서울)

宋斗淵=(자택이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77 대림빌라 303호. 0342-716-3101

제7회

朴正植=9월 19일 숙환으로 별세
裴乙鎬=11월 15일 현대해상 B/D 18층 강당에서 차남 결혼
崔麟鎬=(주)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부회장(취임)

제8회

金成浩=(전화번호변경)0523-362-0730
朴世昌=유전개발 상임고문(취임) 806-5227~8
李成鎬=(자택이사)동래구 사직2동 597 한신아파트 103동 1101호. 504-7834
田英彦=11월 29일 목화예식장 3층에서 장녀 수임양 결혼

제8회(서울)

金炯璧=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회장. 11월 19일 일본건설기계공업협회에서 주최한 국제무역위원회 한국 대표로 참가
朴性在=12월 1일 올림피아호텔 별관 컨벤션센터 4층에서 딸 현선양 결혼

제9회

成百奎=부일체육관장. 8월 14일 어린이대공원에서 부일체육관 개관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李學義=10월 15일 지병으로 별세
劉炳哲=10월 25일 울산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들 강형군 결혼
朱聖昊=11월 10일 서울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사녀 병희양 결혼
金永喆=(자택이사)해운대구 좌동 1298 건영2차아파트 107동 303호. 703-1727

崔鉉喆=김해한일여고로 전보. (자택이사)김해시 삼방동 328-3. 0525-326-2206

金英植=11월 28일 울산 목화예식장에서 차녀 결혼

鄭錄=대한에수교 장로회 목사. 총회 신학대학원 수석 졸업 후 미국 머드웨스터 신학대학원 M.Div 과정에 장학생으로 유학

제10회

鄭周憲=(자택이사)해운대구 좌동 1278 주공아파트 4단지 409동 303호. 742-1561

金喆熙=(자택이사)사하구 다대2동 삼환아파트 209동 1401호. 264-5289

李奉源=(자택이사)사하구 다대동 155 다대 대우아파트 103동 2001호. 263-3121

제10회(서울)

權寧助=11월 7일 아들 용환군 청담동 프리마호텔에서 결혼. (자택이사)서초구 잠원동 57 대림아파트 1동 205호. 592-2018

金在坤=(자택이사)강남구 청담동 108 건영아파트 101동 1108호. 543-4497

朴七玟=(자택)0343-392-0996

成溫=(자택이사)용인시 수지읍 풍덕천 690 동문아파트 102동 1402호. 0331-264-4621

李相華=(사무실전화번호변경)0345-490-1209

鄭泰億=(사무실전화번호변경)0414-744-6404

曹文煥=11월 21일 딸 은경양 대치동 심유센터 17층에서 결혼

陳剛=삼오월드 회장. 546-3535. FAX 514-5690

黃井祚=11월 14일 장녀 수현양 반포동 반포성당에서 결혼

제11회

李正基=10월 18일 부산우체국 4층에서 차녀 결혼

白武浩=10월 25일 한성생명 강당에서 장녀 결혼

安鍾仁=11월 5일 부친 별세

郭正出=11월 6일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차남 결혼

徐子潤=11월 7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차남 결혼

姜点石=11월 15일 국제호텔 온천 별관에서 장남 결혼

金永植=(자택이사)사하구 다대2동 도개공4지구 121동 2105호. 265-1818

千同祚=(자택이사)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장백아파트 116동 1201호. 0523-362-1187

吳吉勳=중보재관주식회사 대표이사(취임).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33-16. 0418-546-0055. (자택이사)사상구 학장동 819 급강아파트 103동 1507호. 328-3858

宋星熹=11월 30일 모친 별세

金達經=12월 20일 코모도호텔 층무실에서 장녀 결혼

金洙坤=(자택이사)해운대구 좌동 1차 건영아파트 304동 2202호. 702-3009.

朴仁圭=부산국제종합전시장 부사장 사임. (자택)02-337-5482

張忠烈=삼성화재 장풍대리점(개설). 243-4496~7. 018-516-1719

제12회

姜良昌=10월 11일 별세

金容鎬=신곡중학교 교감. 10월 24일 차남 결혼

金宰旭=(자택)남구 대연1동 891-23. 621-8186

金春光=30여년 부산시 농정에 이바지 하고 9월 퇴임

裴炳一=김해중학교 교사. 10월 25일 김해에서 장남 결혼

徐茂敏=김해에서 KAL유치원 개업. 0525-334-1104

鄭將吉=해강상사 대표. 415-0025

鄭鉉大=30여년 부산시 보건행정에 이바지 하고 9월 퇴임

崔龍雄=지곡 양어장 대표. 10월 18일 장녀 결혼

제13회

朴輝雄=10월 16일 신병으로 별세

金光修=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이사장(취임)

辛河根=10월 18일 한아름예식장에서 장녀 결혼

金貞一=10월 24일 목화예식장에서 장남 결혼

朴鎬烈=11월 8일 서울 대우센터빌딩 6층 예식부에서 장남 결혼

李任哲=동해의원 원장. 11월 17일 별세

金漢奎=11월 22일 조선비치 대연 회장에서 장녀 결혼

申敏微=11월 28일 목화예식장 5층에서 장녀 결혼

李旻準=12월 5일 올림픽예식장에

서 장녀 결혼

鄭永和=12월 6일 사학연금공단에서 차남 결혼

張榮=12월 6일 올림픽예식장에서 장녀 결혼

제14회

徐廷瑛=옥일토건(주) 대표. 10월 18일 진주 동방호텔에서 3남 결혼. 0591-746-1771~2

李昇遠=10월 30일 부친 별세. 783-7855

南宇俊=10월 31일 목화예식장 5층에서 3남 결혼. 0525-36-2430. (자택)897-3001

金寬=(주)세양월드 전무. 0551-21-5007. 11월 1일 부친 별세. (자택)0551-51-8927

崔炳兌=상업은행 영남본부장. 11월 7일 서울 전우회관에서 장남 결혼. 806-7772

鄭鉉求=부영약국 대표. 555-9007. 11월 15일 코모도호텔 층무실에서 장남 결혼. (자택)554-3920

朴秀夫=대추나무 집(영양탕, 삼계탕 전문집). 경남 밀양시 북북면 전사포리 동암마을 318-3. 0527-356-7488

朴政仁=부산일보 논설주간(이사). 11월 16일 오랜투병 끝에 별세

朴光弘=11월 18일 별세

孔七星=부천약국 대표. (자택이사)부산진구 개금3동 455 산개금LG아파트 214동 1202호. 898-0984

尹龍雄=동의대 교수. 890-1294. (자택이사)동래구 온천3동 화신동영아파트 102동 1001호. 501-7807

제15회(서울)

裴薰=올림픽웨딩프라자 총괄이사. 906-9081. 9월 27일 올림픽웨딩프라자에서 장녀 소연양 결혼. (자택)722-9247

金京熙=국민선물(주) 대표이사사장 592-5315

金雄世=관세산업(주)감사. 546-3161. (자택)0342-713-0016

羅準=롯데정보통신(주) 대표이사. 798-4600

明浩根=쌍용양회공업(주) 대표이사 사장 취임. 그룹구조개혁실행위원장 겸임. 270-5115

文玉綸=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740-8877

朴學烈=행림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축이사. 10월 24일 심유회관 예식장에서 장남 재호군 결혼. 3463-6691

李相玖=10월 27일 일산 정원가든 야외예식장에서 재혼. 한국생명운동본부. 3446-3939

李理國=대림엔지니어링(주) 고문. 369-4023

張孝星=(주)범 건축 김리단장. 551-7500. (자택)565-9660

제16회

동기회장을 역임했던故심송남회장 장녀 영민양의 결혼식(10월 31일)에 축하해 준 동기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吉正道=12월 5일 장녀 지은양 결혼. (자택)202-6020

邊一秀=밀양경찰서 무안파출소장. 0527-52-0112. 12월 5일 장남 효석군 결혼

李永泰=정우무역(주) 대표이사. 643-5006~7. 10월 23일, 11월

27일 두차례에 걸쳐 한려수도 청정해역에서 낚아올린 감성돔을 통영으로부터 직송 60여명의 동기생들에게 회식 제공

洪晶吉=구포 대성탕 대표. 335-9341. 11월 19일 초도에 수석채 집하러 갔다가 현지에서 참소라 구입하여 직송, 동기생들에게 소라파티 제공

李明洙=12월 19일 자택에서 아주머니가 직접 장만한 한우 곱창으로 동기생 20여명에게 곱창전골 파티 제공. 203-4044

車相榮=동양제강(주) 대표이사. 413-9501. 12월 20일 서울 공향터미널 예식장에서 장남 결혼

李性仁=동마산병원장. 12월 26일 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에서 장남 창훈군 결혼

李榮珪=해운대 우2동 동장. 747-3002

李採彦=인제대 보건대학원장. 890-6744

金茂光=우정기업사 대표. (사무실 이전)영도구 남항동 3가 141-56. 412-3399

金政鎬=(자택이사)해운대구 좌동 대림3차아파트 305동 2301호. 746-7940

金軒=동광엔지니어링 대표. 805-5891

趙武錫=망미동 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자택)327-9615

李成男=조은공업 고문. 0523-383-9078. (자택)해운대구 중1동 크리스탈 O/T 1104호. 742-8482

林觀淳=(자택이사)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29 경동아파트 나동 503호. 0475-731-7339

蔡景一=원주에서 국군대구병원으로 귀환. 011-816-8670

申榮俊=부인 조순자여사(국악인·마산 가야국악회관 운영·경남국악교육연구회장)가 10월 27일 국립국악원 우면당무대에서 여창가곡독창회를 개최

제16회(서울)

姜大鳳=(자택이사)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강선마을 동신아파트 47동 106호. 0344-914-3228

姜時雨=AUTO SHINE(카 센터) 대표. 653-5008~9

金百榮=수원시 팔달구 매탄4동 860-1 현대아파트 104동 506호. 0331-212-0939

金成秀=12월 24일 부친 별세. 3476-0440

金鍾石=태백세무서장. 0395-52-2919

金俊弼=11월 16일 부병 끝에 별세

金淸玉=(자택이사)송파구 삼전동 105-14. 202-0781

南元鐸=(자택이사)동작구 사당2동 신동아아파트 407동 308호. 533-2566. 차녀 주연양의 행정고시 합격을 축하합니다

孔明圭=(자택이사)송파구 오금동 44 현대아파트 35동 105호. 401-3094

朴榮浩=(자택이사)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396-3 신도아파트 201동 1101호. 0351-826-9689

朴春浩=관악구 신림7동 104-3 14/1

薛熙淳=재경동기회 회장. (주)삼테크 고문. 3458-9005

李圭芳=(자택이사)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동보아파트 101동 1403호. 0331-264-0762

李明久=M.K.L산업 대표. 032-

566-8011. (자택)용인시 이촌1동 300-3 왕궁아파트 3동 508호. 792-7119

成震鎬=인천시 지하철운영공사 운영이사. 032-434-0135

趙道宰=싱가폴근무 마치고 귀국. (자택)강남구 압구정2동 한양아파트 25동 1103호. 542-7512

朴國平=12월 6일 차녀 혜진양 결혼. 796-0647

李哲雄=안과. 10월 31일 장남 결혼. 855-7671

李秀雄=12월 15일 차녀 소정양 결혼. 0344-381-0302

千耕=(주)공신기공 대표이사. 032-682-5544~5

제17회

金時永=태평양유리상회 대표. 국제시장. 245-8917

金周榮=비사문식당 대표. 광안리 해수욕장 입구. 757-2460

金鍾國=기장 진국돼지국밥집 대표. 724-1116

金志昌=호포Hits집 대표. 남포동. 245-1620

朴海斗=탕가소주방. 부평동 상업은행 뒷편. 256-4467

李範烈=산정농원 사장. 255-1144

李政輔=죽마고우소주방. 남천동 남부산세무서 앞. 623-0598

余聖烈=서면골프 대표. 803-0654

제18회

金基茂=동래여상 교사. (자택)전화번호변경)0523-388-2707

金宗相=송호가스대표. 11월 21일 장남 결혼. 0598-43-8840

孫永根=11월 23일 부친 별세. 701-5558

李在一=반도통상 대표. 0502-304-6060. 019-304-6060

李香雨=청초테니스장 대표. (전화번호변경)704-0754

韓正甲=동아상호신용금고 대표. 643-2223. 016-327-2989

제20회

金弘大=대원정관인쇄사 전무. 11월 28일 서울 웨딩아트홀에서 딸 결혼. 244-5500

金大斗=(개업)선진산업가스(주) 대표이사. 청학동. 417-8858~9

金韓元=경남고교 교사. 11월 29일 에덴예식장에서 딸 지영양 결혼. 248-2181

白承萬=(주)리텍 상무이사. 11월 22일 모친 별세. 204-1276

朴時煥=(취임)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진흥회 부산지부장. 247-9710

申鉉石=(자택이사)동래구 수안동 32-2 수안조성하이츠아파트 1901호. 554-6573

孫永鐵=12월 11일 부친 별세. 324-2031

陳慶一=남일상사 대표. (사무실이전)사상구 덕포동 417-1. 302-7995

金大源=한도실업(주) 대표이사. (자택이사)남구 용당동 564-3 한신문화아파트 101동 1303호. 621-3531.

바로잡습니다

회보 제304호에서 2면 제7회동기회광고 명단중 회장 尹普憲을 「尹普憲」으로 총무 金恩遠을 「金恩遠」으로 부회장 金成梁을 「金成梁」으로 본부이사 朴斗萬을 「朴斗滿」으로 각각 바로잡습니다.

겨울바위 위의 노란꽃처럼

김 경 수 (30회)

겨울날 정오의 환한 햇살 아래에서
 큰 바위 틈을 뚫고 피어나 있는 노란 꽃을 보아라.
 삶을 누르는 어두움이 무거울수록 그 뒷면에는
 더 웅장하고 더 환한 빛이 예비되어 있는 법.
 우리들 어두움이 아무리 깊고 크다고 하여도
 바위 위의 노란 꽃처럼 은근과 끈기로
 예기치 못하게 맞이하는 이십세기 말의 두꺼운 바위를
 끝끝내 뚫고 눈부신 빛을 맞이하자.
 이 추운 겨울 들판 위에서
 우리들 가슴에 새벽별 하나 꼭 안고서
 너와 나는 모두 서로에게
 노란 꽃이 되고 가을햇살이 되자.
 수확이 끝난 농지 위에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풀꽃이 힘차게 타오른다.
 요동 별판을 힘차게 말라던
 고구려인들의 함성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1998년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극복할 과제를 남긴채
 역사의 한 귀퉁이로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역사를 통해
 겨울 들판 한가운데 서서 버텨도
 요동별판의 그 힘찬 함성소리를 듣는 귀를 가졌다.
 겨울의 끝이 아무리 날이 서 있어도
 우리 모두는 끝끝내 바위 위의 노란 꽃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장식할 것이다.
 기묘년 새해는
 인내하고 준비하며 땀 흘리며 일하는 우리들에게
 벌써부터 화려한 미소를 짓는다.
 이제 겨울은 얼마 남지 않았고 머지 않아
 희망을 가슴 가득 안은 봄은 올 것이니
 우리들은 예전 어느 때보다 추운 이 시대에
 서로에게 노란 꽃이 되고 가을 햇살이 되자.

새해 추시
서로에게
불꽃처럼
타오르자



박 광 희 작
45x53cm. 전통 한지 위에 유화 및
아크릴물감 구성.

영원한 자유

작품세계 용마가족의 기묘년 행운
 을 빌며 선보인 이 「영원한 자유」는
 현실생활의 굴레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이 잠시나마 무한한 자
 유를 그리며 푸른 꿈을 찾아 나서려
 는 힘찬 모습을 표현한 것.
 IMF고통을 참아온 우리들이 새해
 에는 정신적 풍요로움을 안고 건강하

게 생활할 것을 기원하고 있다.

작가근황 현재 부산서중학교 미술
 교사이며 부산미술협회원이다. 「정인겅
 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정인석동문
 (28회)의 부인. 개인전을 두 번 열
 었고, 부산 서울 등지에서 여러 차례
 그룹전에도 참여했다.

대전지역 세모축제 새 회장 정운모 (18회)



대전지역동창회는
 지난 12월 8일 송년
 회를 겸한 98년 제4
 차 정기회를 둔산 신
 시가지 「군산앞바다
 횃집」에서 열었다.

張虎男회장(17회·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27명의
 동문이 참석, 鄭允謙동문(18회·정의
 과의원 원장·사진)을 신임회장에 선
 출했다.

특히 趙大宇동문(25회·충남대 교
 수)이 「IMF 1년 힘냅시다」라는 글
 귀가 담긴 타월세트를 참석 한 동문들
 에게 선물해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동문애를 느끼게 했다.

푸짐한 안주와 술로 2시간 가량 즐
 겁게 보낸 동문들은 『후라! 경교!』
 삼창을 끝으로 공식행사를 마친 후
 노래방 호프집을 거쳐 金浩運동문
 (19회)의 「오오구이 포장마차」에까
 지 진출해 회포를 풀었다.

제43회 송년체육대회 회장 김진규 선임



제43회동기회는 지
 난 12월 6일 오전 9
 시 모교(경남고)에서
 98년 정기총회를 열
 고 김진규동문(사진)

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재웅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50여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식과 2부에서는 축구 족
 구 발야구 등 체육대회를 열어 결속
 과 화합을 다졌다.

행사를 마친 동문들은 중구 중앙동
 황규민동문이 운영하는 「미나식당」
 에서 뒤풀이를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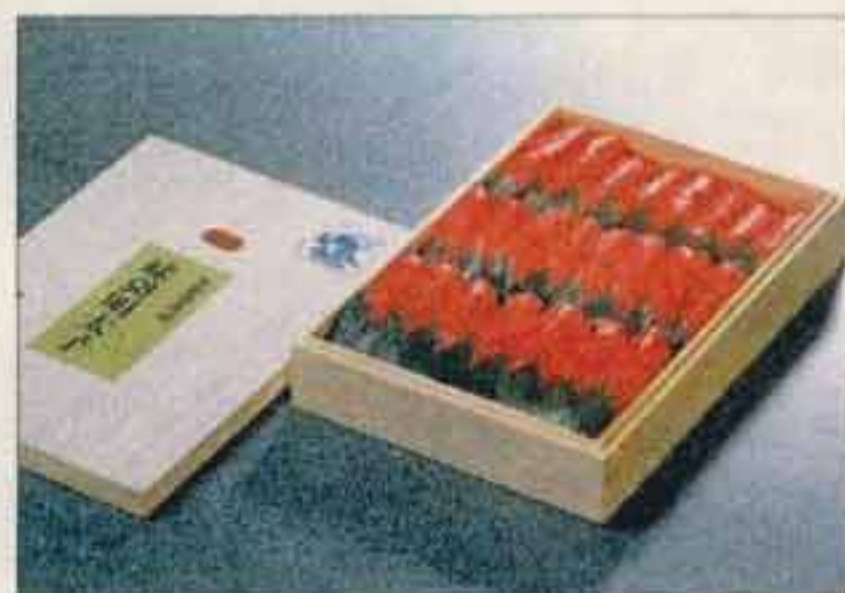


김경수동문은 내과 전문의이자 시인이다.
 부산대 의대와 한양대 대학원을 졸업한 김동문은 부산에
 서 김경수내과과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동문은 월간 「현
 대시」를 통해 등단했고, 한국시인협회 부산시인협회 부산
 문인협회 회원이며 계간 「시와 사상」동인 대표이다.

광고협찬 안내

어려운 시절 힘들게
 견뎌나가고 있는
 동문기업을 도움시다

- 크기 및 금액
 8cm×24.5cm(40만원), 8cm×12cm(20만원),
 8cm×6cm(10만원)
- 내용:
 ·업체소개·주요 취급품목·대표자명(사진 포함)
 ·연락처·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
- 문의사항: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전화(051)245-7551~2



대경명란(주) 강 창 수(21회)

부산: 전화 255-7211~3
 팩스 255-7214
 서울: 전화 593-6163

“코디인테크디자인(주)는
 인테리어 디자인/
 국내, 해외 전사디자인의
 NEW LEADER 입니다”

대표이사 오형권(28회)

·서울본사: 강남구 [대치동] 943-12 금영B/D 5층
 TEL (02)568-7373 FAX (02)568-7478
 ·부산지사: TEL (051)442-5854 FAX (051)442-4178

인테리어
 웬디스햄버거 무역센터점 시공
 용인동성화학연구소 의장실 시공
 고급주택 인테리어
 현대자동차 모토프라자 매뉴얼디자인, 시공
 가수 이승환스튜디오 드림팩토리 디자인, 시공
 제일제당 뚜게जू드 베이커리 매뉴얼디자인, 시공
 스키아라 리뉴얼 매뉴얼디자인, 시공
 동성화학 화장실 디자인, 시공

전시
 대전 EXPO, EC통관관, VIP관 사우디관 시공
 삼성전자 화이트 TV, 런칭, 전국
 -해외20개국 순회전시, 이벤트
 중앙일보 라인투어 기획, 디자인, 시공
 SOFT EXPO 정부정책 홍보관 시공
 KOFAS한국중공업 전시관 디자인 시공-COEX
 AUTODESK EXPO 전시관 디자인 시공-COEX
 서울국제 만화 페스티벌 이벤트관 시공-COEX
 세미콘코리아 JSR일본관 시공

CODI
 코디인테크디자인(주)

이병훈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李秉勳(32회)
 (現 북부산세무서 과세적부심 심사위원)

기장대리·회계감사·세무조정·법인설립·이의신청

所 訓
고객만족경영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52-2번지
 부산산업용재유통상가 7동 2층 242호
 전 화: 317-6262~4
 F A X: 317-6265

마단오거리 삼성안과



의학박사 전문의·원장
 이 병 준(32회)

수술상담 및 예약

백내장·라식수술실
 ☎ 204-2275
 당일수술!! 당일퇴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03-16번지
 (하단오거리 서울은행 3층, 하단지하철역 하차)
 TEL: (051) 204-2275~6

